

금융도시 조성 위한 지자체 역할 토의

도, 금융중심도시 인프라 주제 '제11차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이용신 교보약사자산운용 본부장 특강

전북도는 지난 17일 제11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자산운용의 이해와 금융중심도시 인프라'라는 주제로 강의와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교보약사자산운용(주) 이용신 본부장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전북은 오랜 기간 글로벌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왔고, 이후 국내 안팎의 내로라하는 금융기관들이 전주사무소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를 향한 길이 순탄치 않지만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준비하며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교보약사자산운용(주) 이용신 본부장은 '자산운용의 이해와 금융중심도시 인프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1월 1차 새로운 전북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와 실국장 등 참석자들이 '자산운용의 이해와 금융중심도시 인프라'란 주제로 이용신 교보약사 자산운용(주) 본부장의 특강을 듣고 있다.

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이 본부장은 "자산운용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요구하는 최고 전문기관의 영역이다. 자산운용기관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운용 뿐 아니라 위탁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전북도가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

서는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도시 정책의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국내 타 도시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외국인 금융인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해외 금융인 유치 방법,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KME 2023' 참여

전북도·전주시 공동 홍보관 운영... 전북의 다채로운 매력 소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6~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KME(KOREA MICE EXPO, 코리아 미이스 엑스포) 2023'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KME 2023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미이스 박람회로, 지난 2022년부터 전주시와 함께 전북도·전주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 문화의 정수 전라북도', '왕의 궁원 전주'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조선 태조어진과 취타대 한자인형을 바탕으로 홍보관을 구성했다. 또한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농생명 분야 같은 특화산업과, 도내 14개 시·군의 유려한 자연경관 등을 소개했다.

공동 홍보관 내 상담부스에서는 전북 스마트 미이스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인 △베스트웨스턴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군산 △내장산 생대담방울 △전주 꽃심호텔△무주태권도원 등 총 10개 기관이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오는 2024년 1월 18일 새롭게 달라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흥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KME 2023에서는 전북의 다양한 MICE 자원을 소개하고 알릴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다양한 도내 관광 기관들과 협력해 MICE 목적지로서의 전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ME는 국내 최대 규모 미이스 산업 박람회로 300개의 기관, 기업이 전시 부스를 운영, 해외 32개국 바이어 1200여 명을 비롯한 미이스 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은성 기자

도, 하반기 도-시군-재단 관광분야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지난 17일 완주군 오성한옥문화센터에서 전북관광활성화와 2024년 신규사업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도-시군-재단 관광분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천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도 관광산업과, 14개 시군 관광부서, 산하기관 문화관광재단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콘텐츠·홍보분야를 자문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의 김형우 박사가 '리셋(Reset)의 시대 전북관광의 노정은?'이란 주제로 첫 강연의 막을 열었다.

김형우 박사는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관광은 민생경제의 핵심분야임을 강조하면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사례로 순천이 정원으로 뜨는 도시가 되었듯 전북 역시 관광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역관광의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미식관광협회 부회장이자 온고푸드 커뮤니케이션의 최지아 대

도-시군-재단, 도내 관광활성화 위한 네트워크 강화 도모

체류형 관광객 위한 미식·위케이션 등 확대 필요성 제안 등



지난 17일 완주 오성한옥문화센터에서 전북관광활성화, 2024년 신규사업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3년 하반기 도-시군-재단 관광분야 워크숍'이 열렸다.

표가 '전북 미식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최지아 대표는 국내의 미식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식관광에 대한 이

해와 경향분석, 그리고 전북이 미식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은 한국음식문화의 수도라고 할 만큼 위상을 이미 선점하고 있으며, 향토 음식자원과 관련 관광자원

을 연계한 미식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도가 향후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관의 역할 재조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미식관광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도에서는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위케이션, 미식관광에 가고 싶은 K-관광선 육성사업, 섹셋 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관광안내체계 관리 강화,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과 함께 제도개선으로 달라진 전북투어패스와 순환관광버스 등에 대해 설명했다.

14개 시군과 산하기관인 재단에서도 도의 정책을 공유하며 체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대응 논의 및 향후 글로벌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2024년 주요 사업의 정보공유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와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인 재단의 신규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유관부서 간의 협의, 업무 조율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원주=염재복 기자

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적극 권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고령층 무료 접종

전북도는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러한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

부·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지방하천 관리 평가 추진

호안정비·하도준설·제방정비 등 추진현황 점검·평가

전북도는 20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지방하천 459개소(2,875km)를 대상으로 추진한 각 시·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 표창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가 함께 하천 우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경작지와 무단점용 시설에 대한 단속 및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관리상태 및 정비실적을 철저히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하천법 제27조 및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환경부령)에 따라

추진하며 평가 주요 항목으로는 △축제·호안 정비 △하상 정비 △수문·보·낙차공 정비 △예산 집행실적 △불법 점용시설 단속 현황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표지판 정비 등으로, 하천관리 현황에 대하여 다각도로 점검하게 된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수해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군에 표창을 부여해 도내 하천의 내실있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표창은 시부와 군부로 나눠 각각 최우수·우수 기관, 담당자에게 수여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